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11일 수요일 음 11월 15일 (7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9-13℃, 낮 최고 기온은 16-18℃로 예상된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져 체감온도는 낮아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20%
20%	성산	20%
20%	고산	20%
2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63185〉

내일 맑음 7/11℃

모레 맑음 6/15℃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주의 보통

월드뉴스

1억원 바나나 먹은 예술가 “예술파괴 아냐”

“난 예술 콘셉트를 먹은 것”

벽에 붙은 ‘1억짜리 바나나’ 예술작품.

미술품 전시회에서 12만달러(약 1억 4000만원)에 팔린 ‘바나나 작품’을 먹어치운 행위예술가가 9일(현지시간) “내 행위는 예술이었으며 미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위예술가 데이비드 다투나는 “그날 아침 바나나를 먹기로 결심했지만, 배가 고파지 않아 전시장 밖에서 2시간을 더 보낸 후 먹었다”고 말했다. 다투나는 8일 미국 플로리다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서 전시 중이던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코미디언’을 그 자리에서 먹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작품은 바나나 한 개를 닥트 테이프로 벽에 붙여놓은 것으로서 미술관 측은 “세계 무역을 상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투나는 “카텔란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가로 생각하며 존경한다”라며 “이번 일은 예술가의 콘셉트를 다른 예술가가 먹은 예술 역사상 첫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투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바나나를 먹었느냐?’라고 묻는데 물질적으로 본다면 바나나이지만, 바나나는 도구일 뿐 나는 예술 콘셉트를 먹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예술 파괴행위와는 다르며 행위예술로 절대 미안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내 행위예술을 ‘배고픈 예술가’라고 부르겠으며, 실제 난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주 에너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다

김 태 훈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의 에너지 변천과정을 수집 정리해 지나간 역사를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지역에너지 수급정책 마련과 미래의 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내 처음으로 에너지백서 제작을 올해 5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는 과거부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에너지수급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전통적 에너지원인 석탄과 석유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시기에 접어들어도 육지에서 배를 통해 석탄과 석유를 싣고 들어오는 과정에 해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 공급이 어려웠으며, 에너지소비량 또한 육지부에 비해 많지 않아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에서도 그리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전세계 에너지 위기 이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제주는 1975년 국내최초 풍력발전기를 가동했고, 1998년 국내최초 상업용 육상풍력발전기 가동과 2017년 전국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기를 가동하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운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더불어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로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백서에는 제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에너지현황 및 관련계획, 카본프리 아일랜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제주의 에너지 변천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에너지백서를 발간해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도민사회와 유관기관에 발간자료 공유를 통해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더욱 알려 나갈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로 메리크리스마스

조 성 현

서귀포시 서흥동 주민센터

어느새 12월도 중순을 향하고 있다. 담당자로서 어려운 이웃들이 잊지 않고 자신의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고자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 혜택을 지원하는 카드다.

제주도에서는 복권기금과 지방비를 통해 2019년 기준 1인당 연간 8만 원이 지원됐다. 매년 전국 어디에

2019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하며

양 규 식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

지난 11월 26일,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농가 및 농업인단체 200여 명과 함께 ‘2019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금번 평가회는 2019년 농촌지도사업 성과 및 2020년 주요사업 계획 보고, 종합토의를 통해 농촌지도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농업인과 한 해 동안의 사업 평가를 통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의 방향을 찾고자 했다.

2019년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월동채소 소득 안정 체계 구축 ▷제주키위 및 새로운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 ▷농가형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을 핵심정책 과제로 하여 농촌지도사업에 펼쳤다. 그 결과, 안정적 채소 공급 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

우리 가족의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박 욱 현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난방을 위한 화기 취급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률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 할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주택이다. 가장 편안해야 하는 장소가 가장 위험한 곳이 되기도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기보다는 철저한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슬기롭게 추위를 넘어가야 한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주택용 소방

진정한 휴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잡초의 경감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이미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페르카*

웃음 캐릭터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향비료

관주, 양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감 평

천 해 향

성전온주

황 금 향

하래조생

맹 자 묘

3년생

3년생

4년생

4년생

4년생

3년생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아름다운 마지막 동행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초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노형에서 10분 거리

- 독립적인 5개의 고품격 분향실
-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한제공)
-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